

공천개혁·의원정수 확대 제안했지만...선거제 개혁 '산 넘어 산'

정개혁위 자문위, 개혁안 발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산하 자문위원회가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권고했지만 실제 선거제 개혁을 이루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여야가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고 제1당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태세다.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개혁위 내에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애초 여야 5당의 합의 시한인 1월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내년 총선 직전까지 지난한 협상 과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개혁위 자문위는 권고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360명 증원과 국회 예산 동결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 하향 ▲공천제도 개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우선 기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고 검토한다'는 표현으로 이미 등장했다.

또한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현재 300석인 의석을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의석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권고안은 '국회 예산 동결'과 '정치 개혁'이라는 안전망을 함께 제시하긴 했지만, 여야 정치권이 반대 여론을 뚫고 나갈 만큼의 의지를 보이지는 미

의원수 360명·선거연령 18세 인하

여야 총론 공감대 형성 각론 의견 엇갈리

합의시한 이달말까지 결론 도출 힘들 듯

지수다.

당장,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는 자문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더 큰 문제는 의원정수 조정과 지역구 의석 축소 문제를 연동해 고차 합수를 풀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매 총선을 앞두고 한두 군데 지역구 조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극심한 갈등을 반복해 왔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에는 서로 찬성할지라도 실제 의원 개개인의 '정치 생명'이 달린 지역구 축소 작업이 구체화 되는 순간 여야 논의가 무기한 답보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해서인지 자문위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권고안에 명시하지 않았다.

투표 연령 만 18세 하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학교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 자문위 내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개정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임헌조 자문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양산하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개혁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관료부터 교육계까지 '부끄러운 친일'

광주시 '친일 잔재 조사' 영역

광주공원 사적비 등 잔재물 확인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시급

광주시의 '광주 친일 잔재 조사' 영역을 통해 밝혀진 친일 인물은 크게 경찰·사법·관료·교육·음악 분야로 구분되는데, 당시 전남도 경찰부 경찰청장, 광주고법원장, 광주고검장, 전남도 관찰사, 도지사, 전남대 총장, 광주일교 교장 등 156명이 포함됐다. 친일 잔재물로는 광주공원 사적비와 관찰사 윤공영렬 선정비, 관찰사 이공근호 선정비, 행군수 홍후남유 구배선정비, 원호사 부도전 송화석 부도비 등이 확인됐다. 이번 영역에서는 역사적 참사가 일어난 곳이나 아픈 과거를 활용하는 '다크투어리즘'을 활성화 하고 일제의 공간에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광주 근대 역사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역에 따르면 송정공원 내 나무야미타 불탑과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서구 양동 전남도지사 제사공장(굴뚝), 지하시설 및 방공호 등 건축물도 친일 잔재물에 포함됐다. 남구 사동 양파정 현판 등 누정 목판도 상당수가 잔재물로 남아 있다.

특히, 원호사 부도전 송화석 부도비·부도탑도 친일 잔재로 지적됐다. 이 부도탑과 부도비는 원호사와 별개로 건립됐고, 송화석 후손들이 불교선우회장 등과의 인연으로 지난 1992년 임의로 건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의 군사시설도 있다. 일본이 서구 상무지구에 광주비행장을 건설하면서 공군기지로 활용하려 했던

사월산 지하시설, 서구 벽진동 동굴(탄약고), 마북동 동굴,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 주변 지하시설, 양림동 지하시설 남광주 시장 지하시설 등 각종 군부대 시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영역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행적을 기록하고 친일 잔재물임을 알리는 단죄비 설치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 후대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유산 ▲네거티브 유산을 견학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한 다크투어리즘 추진 등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영역 결과를 토대로 광주 친일잔재 TF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친일잔재 청산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무비서관 복기왕·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 임명

청와대 2기 비서관 6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무비서관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논설위원을 임명하는 등 6명의 신임 비서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총추관장에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 인해 공석이 된 제2부속비서관 자리에는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이 이동했으며, 새 해외언론비서관은 김예경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가 맡았다. 문화비서관으로는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임명했

다. 광주 출신의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전남 고흥출신으로 광주 송원여고, 이화여대를 졸업했으며 김예경 해외언론비서관도 전남 출신이다.

나머지 비서관 인선은 문 대통령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일 오전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

전날 발표된 노영민 비서관, 장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비롯해 새로 합류하는 비서관들은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배석할 전망이다.

한편,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의 3대 원직으로 '성과·경청·규율'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임기 첫날인 이날 청와대 전 직원에게 발송한 서신을 통해 "성과를 내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통하고 경청하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방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다"며 자신부터 청와대 내 소통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실장은 "절제와 규율의 청와대가 돼야 한다"며 "사무실마다 벽에 걸린 '춘풍추상(春風秋霜)' 문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집권 중반 구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52) 인생 그림

정재승교수(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는 최근 저서 '열 두 발자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묻는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답변 중 하나가 "어린 시절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을 때였다"고 들려준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 부모님이 흐뭇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서 안전함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있으며, 고개를 들면 바다가 보이는 상황, 즉 놀이에 몰두했던 동안에 행복해한다는 것이다. 정말 행복한 순간은 평범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해 본다.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이 첫 걸음을 떼었을 때의 환희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조금 허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게 기고, 서면서 '드디어' 첫발을 들고 내게로 왔을 때의 그 첫걸음의 기쁨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한발 한발 아슬아슬하게 두 팔을 벌린 내게 다가오던 첫걸음은 그간의 조바심과 우려에서 벗어나게 했고, 이 연약한 아이의 앞날을 위해 평생 착하고 남을 위해 배려하고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했었다.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의 '첫 걸음' (1858년 작)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딸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는 엄마와 일하던 삼자루를 던지고 두 팔 벌려 딸의 첫걸음을 반기는 아빠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장면으로 꼽고 싶다. 나의 심정이 감정이입 되기도 했겠지만 감히 이 한 점의 그림을 나의 '인생 그림'으로 간



밀레 작 '첫 걸음'

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밀레는 프랑스 2월 혁명 시기에 일군의 화가들과 함께 프랑스의 바르비종이라는 마을에 모여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을 관찰하여 풍경화와 농부들의 진솔한 생활을 그리기도 했다.

밀레의 치열한 농민화는 당시 아카데미의 고상하고 점잖은 그림과 거리가 멀어 가히 '미술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조화롭고 억제된 색채구성, 소농 가족의 소박함이 당시만 해도 그림의 소재가 되기에는 어색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술사박사〉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 전 대표 1588-1543
담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본 투자는 고액의 이익을 장기 제적하며, 실제와 다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임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임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임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임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가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흥 | (주)SB빌기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흥 | 기보종합건설